

시론



강동완

조선대 명예교수·(사)생명존중 지구촌 연대 뇌건강 치과 시 연구회 대표

진보와 보수의 갈등에 의한 정치·경제·문화적 분노는 존재하지만 본질적으로 진보와 보수는 '좋고 나쁘다. 옳고 그르다'의 이분법적인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건강한 사회를 위해 경청하고 존중하면서 성장해야 할 중심체의 양 날개와 같은 가치 개념이다. 그러나 극단적 욕망의 편 가르기로 상대를 약화해 혐오하는 것은 공동체의 안녕과 번영을 위해 자제되어야 할 부분이다.

진보와 보수를 뇌과학적으로 연구한 결과 보수 성향의 사람들은 외부 위협과 불확실성으로 발생한 공포, 불안에 편도체(Amygdala)가 더 활성화되고 커진 편도체에 의해 질서와 안정을 위한 행동을 우선시한다. 반면, 진보 성향의 사람들은 전대상회(Anterior cingulate cortex)가 더 두꺼워, 새로운 정보에 반응하는 학습 능력이 뛰어나며 또한 뇌섬섬(Insular)은 혐오와 불공정 그리고 차별에 대해 민감하게 활성화된다. 따라서 보수와 진보의 욕망에 따라 영향받은 뇌구조성에 의해 관점이 다른 생각과 언어 그리고 행동이 유발된다.

그러한 이유로 보수적 욕망과 진보적 욕망이 다르게 작동하지만, 공동체의 행복을 위해 화이부동(和而不同)의 자세로 화해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진보와 보수가 극단적인 좌우 이념의 대립으로 수많은

신개념 뇌건강 치과학 XV

- 진보와 보수의 욕망을 통찰하는 파우스트의 언어

인간을 회생시켰던 전쟁이나 혁명의 역사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점에서 이중적인 욕망의 한계를 극복하여 인간의 참된 아름다움과 선함의 고귀함을 고양한, 괴테가 평생을 걸쳐 창작한 파우스트의 철학을 통찰한다.

파우스트에서 메피스토펠레스는 "내가 없었더라면 가련한 인간의 주제에 어떻게 살았을 것 같아요? 내가 선생을 잡시나마 시시콜콜한 공상에서 벗어나게 해주었소. 내가 아니었다면 선생은 벌써 이 지구를 떠났을 것이요" 라고 말한다. 또한 파우스트도 "사탄이 있으니 착한 정령도 분명 존재하지 않겠느냐?" 하면서 선과 악의 대립을 인식했다. 사실 진보나 보수가 약력이 없이 미덕만 있었다면 선택할 자유가 없었을 것이다. 선과 악이 대비되기에 선의 본질이 파악되고 인류는 성장해 왔다.

그러한 점에서 파우스트는 진보적인 인간 존재의 욕망 탐구와 보수적인 인간의 도덕적 가치를 대립시켜 욕망이 어떻게 성숙할 수 있는가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파우스트와 계약한 악마의 화신인 메피스토펠레스는 파우스트의 외면에 있지만 파우스트의 내면에 깃들여 있는 그림자였다. 이는 보수적 욕망과 진보적 욕망이 한 마음에 깃들고, 선과 악이 한 인간의 마음에 공존하기에 어떠한 가치와 도덕적 태도로 성숙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자유의지화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진보적인 욕망이 보수적인 도덕적 기준과 충돌하면서 인간의 내면을 탐구하는 파우스트가 구원을 받는 여정은 성숙한 진보와 보수의 가치가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다. 부분적이지만 여전히

미성숙한 극단주의자들의 진보·보수적 편견과 오만 때문에 혼란스럽다. 그러나 인간이 지닌 욕망의 한계를 극복한 창의적 도전으로 진보와 보수의 화해를 보인 파우스트의 언어를 살핀다.

"인간은 지향이 있는 한 방향하느니라"는 말은 인간이 본능적인 욕망을 추구하는 고난의 과정에서 방향을 강조하며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보여준다. 보수적이든 진보적이든 그 가치를 지향하는 누구든 극단적인 방향에 빠진 경우 사회적 고통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공동체적 책임감이 인식되어야 한다.

"자유도 생명도 두려 마땅한 자는 날마다 그것들을 싸워서 이겨내는 자뿐. ~ 멈추어라, 너 참 아름답구나!" 표현은 신적인 이상과 악마적 욕망 사이에서 갈등하는 파우스트가 최종적으로 도덕적 선택으로 지고의 순간을 맞이하는 상징성을 나타낸다. 방향하는 인간의 도덕적 책임감은 진보와 보수의 화해 과정에서 성찰해야 할 부분이다.

파우스트의 언어 중 "영원히 여성적인 것이 우리를 이끌어 올리노라"라는 깊은 울림을 준다.

파우스트가 극단적 욕망에 의해 사망한 그레트헨의 기도를 통해 구원받는 장면은 순수한 사랑에 의한 모성의 힘이 구원의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강조한다.

이러한 보수와 진보의 화해를 위한 파우스트의 통찰에 따라 진보의 공동체적 연민과 겸손으로 가다듬는 정이가 보수의 엘리트적 오만을 정화하고, 보수의 도덕적 책임감과 이타성에 의한 노블리스 오블리주가 진보의 포용적 사회통합을 추동하는 시대정신이기를 희망해 본다.

社說

지역 핵심현안 국정기획위 선순위 반영위해 뛰어라

광주시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지난주 인공지능(AI) 국가시범도시, 민·군 통합 서남권 관문 공항 조성, 대한민국 대표 모빌리티 도시 등 7대 핵심 공약을 공유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국정과제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기획위는 통상 대선 이후 대통령 당선인이

해선 반드시 국정과제에 채택돼야 해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진 2017년 조기대선을 통해 긴급히 들어선 문재인 정부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두 달간 운영하고 과제를 발표했다. 당시의 전례를 고려하면 8월 중순 구제 로드맵이 제시될 수 있다.

위원장인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을 필두로 김용범 정책실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 3명의 부위원장과 경제·사회·정치행정·외교안보 등 7개 전문분과장 인선을 마쳤다. 전남도 또한 솔라시티 AI 에너지 신도시, 석유화학·철강산업 대전환 메가프로젝트, 첨단 농산업 융복합 지구 조성, 무안국제공항 동북아 대표 관문공항 육성, 국립의과대학 설립 등 역점 사업, 이와 연계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국정과제 반영 건의과제 발굴 및 보고회를 열었다.

전국의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다. 광주, 전남 역시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보편타당한 맞춤형 논리를 개발하고 주도적으로 움직이며 공감대를 확대해야 한다. 강기정 시장과 김영록 지사도 획기적인 지역 발전을 위해 사활을 걸었다. 시군구 및 동네 공약까지 직접 챙기고 있다. 물론 100개에 달하는 국정과제에 포함되는 게 전부 아니다. 선순위에 올라야 실행을 위한 국가 예산에도 우선 배정된다는 점에서 더 지혜를 모으고 더 뛰어아가야 하는 것이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정치권과 총력전에 돌입했다. 지지부진한 현안들이 추진 동력을 얻기 위

국정기획위가 서울 광화문에서 현판식을 갖고 60일 간의 활동을 시작한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역량을 결집하고 있다. 전략적으로 총출동해 준비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에서 대한민국 미래 성장 중심축으로 확고히 자리잡아야 한다. 좋은 소식이 들려길 기대한다.

장마·폭염...여름철 자연재해 예방 소홀함 없길

해마다 크고작은 피해를 입히는 장마가 제주에서 시작했다. 지난 주말 전후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에 비가 내렸다. 제1호 태풍 '우담'도 필리핀 다낭 동쪽 해상에서 발생, 중국 내륙에서 소멸했다. 경기 내륙에는 올여름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이번 주 장마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들도 여름철 재난 예방에 팔을 걷는다.

입되고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예상보다 일찍 정체전선이 북상한 것으로 보인다. 폭염은 비를 뿌릴 수도 있다. 광주·전남권은 19일 이후 장마에 들어설 것으로 예보됐다. 남부지방은 평년 기준 6월23일인데 빠른 편이다. 기상청은 6월 강수량이 예년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했다. 5월 중순 이후 기온도 높게 유지되고 있어 여름에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다며 재해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예측이 어려운 수준으로 기후변화가 심각해지고 있다.

전남도는 하천·산림·농업·항만·지하공간 등 분야별 재해 취약시설 5만1천31개소를 전수 점검해 필요한 안전 조치를 모두 마쳤다. 22개 시·군, 한국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보성강수력발전소 등 물 관리 기관과 협업체를 구성해 댐과 보 방류 시 사전 협의를 진행하고, 비상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주민이 재해위험지역을 예상하고 대피를 도와주는 '전남형 마을 안전지킴이'를 구성해 운영한다.

정부와 지자체가 실효성 있는 재난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도 인스타그램에 "정치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국민의 안전과 평화를 지키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안전치안 점검회의에서 부주의나 무관심 등으로 인한 사고에는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국민행동요령을 제때 전파하고 단 한 명이라도 인명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안타까운 일은 절대 있어선 안 되는 것이다.

올해는 예년보다 일주일 먼저 장마가 찾아왔다. 특히 2020년, 2011년(6월10일)에 이어 역대 3번째다. 기상청은 남쪽에서 다량의 수증기가 유

자치칼럼



김용민

광주전남지방자치학회장·송원대 교수

청년의 사회참여가 커리어가 되는 도시, 광주를 위하여

출한다. 이는 단순 참여가 아니라, 청년 스스로 사회적 실천을 설계하는 과정이다.

계획서는 시 또는 자치구 차원의 심사위원회를 통해 평가된다. 심사를 통과한 청년에게는 사회참여 수행 기간 동안 일정한 지역 화폐(월 20만원 수준)를 지급한다. 이는 활동에 소요되는 교통비, 식비, 자료비 등 실질 비용을 지원함과 동시에, 참여를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인센티브다. 무엇보다 이 지원은 청년이 사회참여를 '노동'이 아닌 '사회적 기여'로 인식하면서도 꾸준히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이후 청년은 승인받은 계획에 따라 주민센터, 복지관, 마을기업, 사회적경제조직 등과 협력해 실제 활동을 수행한다. 정기적인 보고서나 간단한 온라인 활동일지를 통해 진행 상황을 기록하고, 최종적으로 활동이 마무리 되면 광주시 공식 인증서가 발급된다. 이 인증서는 향후 지역 내 공공기관 인턴십, 사회적기업 채용, 청년정책기획단 위촉 등과 연계될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야 한다.

이러한 방식은 기존의 단순 봉사나 알바 개념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청년이 스스로 참여를 기획하고, 지역이 이를 신뢰하며 자원을 투입하고, 그 결과가 청년의 커리어로 환원되는 선순환 구조다. 여기서 '참여'는 더 이상 소모되는 행위가 아니라 지역 안에서 쌓을 수 있는 경력자산이 된다.

이 제도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정책적 장치가 병행되어야 한다. 첫째, 청년 사회참여 프로그램의 확충이다. 주민자치회, 복지기관, 마을기업 등에서 다양한 청년 활

동 수요를 제시할 수 있도록 공공이 설계와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 청년이 자기 계획서를 기반으로 실제 활동할 수 있는 장이 충분히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온라인 기반 매칭·기록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 참여자 모집, 활동 실적 기록, 인증서 발급 등을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플랫폼을 통해 청년의 행정 접근성을 높이고, 담당 기관의 운영 부담도 줄일 수 있다.

셋째, 청년 맞춤형 홍보 전략이다. 단순한 행정 문서가 아니라, SNS, 유튜브, 카드뉴스, 웹툰 등 청년의 눈높이에 맞는 콘텐츠로 참여 기회를 적극 알리고, 실제 참여자의 사례를 통해 참여의 가치를 확산해야 한다.

넷째, 인증의 실질적 가치 제고다. 사회참여 인증서가 공공 인턴, 사회적기업 채용, 창업 지원, 공공임대 가점 등에서 가산점으로 작동하도록 제도 연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 청년이 '참여하면 성장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결국, 지역이 청년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기회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여기서 시작하라"는 확신이다. 자발적 참여가 인정받고, 그 활동이 커리어가 되고, 지역이 청년과 함께 성장하는 도시. 광주는 그 구조를 가장 먼저 구현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청년에게 '사회참여'는 선택이 아닌 가능성의 시작이어야 한다. 청년의 사회참여가 주민자치의 시작이다. 이제 광주가 먼저 실험적 도전을 시작해 보길 바란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청년에게 사회참여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회는 쉽게 다가오지 않는다. 시간과 비용의 부담, 실적이 불확실한 구조, '경험은 남지만 경력은 안 된다'는 냉소까지. 그래서 청년은 참여를 망설인다. 청년의 자발적 사회참여가 커리어가 되는 도시를 만들 수는 없을까? 참여가 경력이 된다면 많은 청년들에게 상당한 잇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광주에는 이미 다양한 사회참여 기반이 존재한다. 주민자치회, 청년센터, 복지관, 사회적기업, 문화의 집, 환경단체, 마을기업 등이 그 예다. 청년이 이러한 공간에서 캠페인을 기획하고, 프로그램을 보조하며, 지역 문제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다. 그러나 문제는, 이 활동이 체계적으로 설계되지 않고, 청년에게 실질적 보상이나 성장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를 바꾸기 위한 핵심은 '자발적 사회참여체계 인증' 제도이다. 광주시는 일정 자격을 갖춘 청년(만 19~34세)을 대상으로 '사회참여계획서'를 공모 형식으로 제출받는다. 청년은 자신이 희망하는 참여 분야(주민자치, 복지, 환경, 문화, 행정 등), 활동 기간, 목표, 기대성과 등을 자율적으로 기획하여 제

독자투고



매년 여름이 되면 기후 변화로 인해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는 양상이다. 최근 내륙을 중심으로 낮기온이 30℃를 웃도는 더위가 이어지고 있다. 이제 본격적인 여름이 다가옴에 따라 근로자들이 안전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 건설업이나 농업, 배송업 등에 종사하는 야외 근로자는 물론 바람이 잘 통하지 않는

온열질환 발병 대처법은?

열악한 실내에서 근무하는 이들도 온열질환의 위험에 상시 노출돼 있다. 온열질환 예방 요령을 소개하고자 한다. 활동 중 근육 경련이나 어지러움 등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해야 한다. 이후 119에 신고하고 환자의 옷을 느슨하게 한 후 시원한 물을 뿌리거나 선풍기 등을 사용해 체온을 낮춰야 한다. 물이나 이온음료 등 섭취로 수분을 보충하는 것도 유용하다. 다만 탈수를 유발하는 카페인 음료나 알코올 음료를 피해야 한다. 의식이 없는 경우 음료 등을 마시게 하는 건 위험하다. 울려무나도 강력한 폭염이 예상되고 있다. 대처법을 잘 숙지해 다가오는 여름을 슬기롭고 건강하게 이겨내길 기원한다.

이온음료 등 섭취로 수분을 보충하는 것도 유용하다. 다만 탈수를 유발하는 카페인 음료나 알코올 음료를 피해야 한다. 의식이 없는 경우 음료 등을 마시게 하는 건 위험하다. 울려무나도 강력한 폭염이 예상되고 있다. 대처법을 잘 숙지해 다가오는 여름을 슬기롭고 건강하게 이겨내길 기원한다.

(전종연·신안소방서 신안119안전센터 소방교)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침물어는 詩

노벨상

진현성

1906년 아버지 톨슨은 빛이 입자라며 노벨상 받고 1937년 아들 톨슨은 빛이 파동이라며 또 받아



빛의 무덤인 암흑세계, 공동묘지를 파 보면 부지기수의 노벨상 발일 것

그때 가서 누가 개펄 좀 때어주면 받아먹을까 생각. (시집 '운월관산', 도서출판 한림, 2020)

[시의 눈]

톨슨부자가 노벨물리학상을 수상했다. 아버지 톨슨은 빛의 입자설을, 아들 톨슨은 빛의 파장설을 입증한 공로로. 부자가 동일한 연구역에서 두 명이나 노벨상을 받은 일은 흔치 않아 세인의 주목을 끈다. 그런데 이들이 바라보는 시인의 시선은 좀 삐딱하다. 시가심이 발달하고 눈에 거슬린 것일까? 아니면 노벨상에 대한 진정성에서 비껴나 돌연 시니. 절한 시인으로 바라보고 싶었던 것일까? 이른바 관습적인 지적방식을 변화시킴으로써 일상적인 것으로 남겨버리는 일들에 대한 각성을 일으키고자 한 전략일까? 일반 대중이 관습의 범칙으로 보고 있는 사실과 의미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도록 하는 도발적 유도 효과일지도 모르겠다. 비판적 거리감. 그 지점이 존재하기에 흥미롭다. 빛, 작은 알갱이들이 빠르게 날아다니는 입자의 흐름일까, 밝고 어두운 줄무늬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파동일까. 현대 들어 빛의 정체는 입자이면서 파동이란 이중성이 신빙성을 얻는다. 시인은 빛의 본체가 개념하여 간섭하려는 눈치이다. 거리감을 두고 빛의 연구자들이 노벨상을 수상할 때 개펄을 받아먹겠노라 유쾌한 유머를 날린다. 지식의 속박을 버려나 광명을 목격하지 않는 무(無)의 경지에서 누리는 소요 같은 여유로운 아날랜지. <운상현·시인>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장 馬亨列 사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1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로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850-2022
편집부 650-2090 지역특집부 650-2060 광고문의 650-2099 FAX
정치부 650-2030 사진부 650-2080 마케팅본부 650-2070 광고국 650-2016
경제부 650-2050 논설실 650-2006 경영지원국 650-2011 편집국 650-2017
사회부 650-2040 TV본부 650-2009 사업본부 650-2007 업무국 650-2019
문체부 650-2065 서울지사(02) 786-9488 업무국 650-2020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200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가10(日)제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